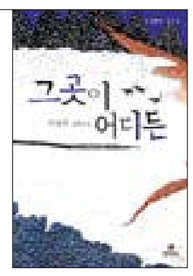
북스

Books

사소하고 시시하다고? 그러나 나아가야 할 삶

그곳이 어디든 이승우 지음



'전기수 이야기'로 올해 현대문학상을 수상한 장흥 출신 소설가 이승우(48·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씨가 장편소설 '그곳이 어디든'을 출간했다. 월간 문예지 '현대문학'에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연재했던 작품을 묶은 것이다.

저자는 최근 프랑스에서 출간된 '식물들의 사생활', '생의 이면'이 페미나상 최종 후보에 오르면서 관념 소설을 즐기는 까다로운 프랑스 독자들에게도 한국 문학이 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바 있다. 저자가 전작에서 보여준 존재론적이고도 본질적인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은 이번 소설에서도 계속된다.

삶의 이면을 관찰하기 위해 독자를 이끄는 곳은 가상의 도시 '서리'다. 소설은 주인공 '유'가 흙먼지와 종이 부스러기가 날릴 뿐, 거리에 사람은 보이지 않고 "바람이 사나운 개처럼 컹컹 짖어"대는 서리에 도착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강요에 가까운 전근 소식을 전하자 아내는 전 남편에게로 떠나버렸다. 아내의 행동 역시 '유'로서는 불가항력이다. 서리로 떠나며 '유'는 읊조린다.

"까짓것. 어디면 어때? 그곳이 그곳이지. 더하면 얼마나 더하고, 덜하면 얼마나 덜하겠어. …살다 보면 어디나 고향이라는 상투적 관용구를 떠올린 것은 아니었다. …어디나 고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디나 타지이고 이방이기 때문에 그곳이 그곳이었다."(27쪽)

'유'는 업무를 인수받아야 할 전임자를 찾지 못하고, 가진 돈과 지갑을 불량배들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자신을 증명할 그 무엇도 없는 떠돌이 신세로 전락한다. 서리는 이처럼 이방인에게 늪과 같은 곳이다. 엉망진창이 된 '유'가 우여곡절 끝에 흘러들어간 곳은 서산봉의 동굴.

그곳엔 "잠깐 사는 이곳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저곳의 삶을 위해 집을 지어야 한다"고 말하는 '노아'의 돌집이 있다. '유' 역시 돌집에 누워 편안함을 느끼고, 노아의 딸과 만나면서 서리의 비밀을 하나 둘 알게 되는가 하는 순간, 다시 삶은 신기루처럼 허무해진다.

저자는 도대체 정체를 알 수 없는 가상의 공간 '서리'를 앞세워 독자를 불편하게 한다. 뻔한 해결책을 앞에 두고도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영화 속 주인공을 보고 있어야 하는 듯한 불쾌함. 저자는 작가의 말에서 "문학, 혹은 인간의 위엄을 유지하는 일에 대해 생각한다. 위엄은 높거나 넓은 데 있지 않고, 깊은 데, 말하자면 불편한 데 있다"고 했다.

서리는 어디에도 없지만 어디에든 존재하는 유형지와 같은 '불편한' 곳이다. 작가는 알베르 까뮈의 '적지(謫地)와 왕국' 속 문장을 인용해 "그러나 적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왕국이기도 하다. 우리의 할 일은 바로 그 적지를 왕국으로 만드는 절망적인 노력이라고 작가는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말한다.

'유'가 서리로 떠나기 전 원치않은 발령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은, 저자가 우리에게 묻는 말이기도 하다. "그럼 여기서는 행복한가." '그곳이 어디든' 말이다.

〈현대문학·9천800원〉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김종광씨 장편소설 '율려낙원국' 펴 내

'경찰서여, 안녕'(문학동네)의 젊은 소설가 김종광씨가 특유의 풍자와 입담을 장편소설 '율려낙원국'(전 2권)에 담았다.

저자는 박지원이 쓴 '허생전'의 '큰 돈을 번 허생이 도적들을 데리고 가 낙원을 이루었다'는 언급에서 힌트를 얻어 상상력의 나래를 맘껏 펼쳤다.

1권 '도적 포획기'는 허생이 돈으로 고용한 무사와 싸움패로 변산 도적을 토벌한 뒤 돈으로 도적들의 마음을 사기까지의 과정을, 2권 '낙원 건설기'는 허생과 도적들이 1년 동안 낙원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가 재창조해 낸 허생과 도적들의 이야기에서 '진정한 이상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현대인의 모습이 비춰진다.

〈예담·각 권 9천원〉

'인디고 서원'의 행복한 인문학 수업

책 읽고 토론하고 강의 듣고 청소년들이 쓴 책 세권 나와

지난해 발간된 'My beautiful girl, indigo-인디고 서원 내 청춘의 오아시스'와 '주제와 변주 1, 2'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각거리'를 던져 준 책이었다.

지난 2004년 문을 연 부산의 한 작은 인문서점인 '인디고 서점'에서 청소년들이 책 읽고, 토론하고, 강의 들은 내용을 옮겨 놓은 두 권의 책은 그들이 읽는 책의 다양성과 사고의 깊이로 '어른 독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특히 최재천·도정일·장영희 등 국내의 내로라하는 학자들이 인디고 아이들이 운영하는 '주제와 변주'라는 프로그램에 초대 받아 그들과 대화하고, 토론한 내용은 아주 인상적이었다.

이번에 인디고 아이들이 직접 쓴 세 권의 책이 한꺼번에 나왔다.

'인디고 서원에서 행복한 책읽기'는 열일곱 고등학교 1학년생들이 또래 친구들에게 권하는 도서 목록이다. 문학, 역사, 철학, 예술, 생태,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추천목록은 어른들이 읽어도 손색 없다.

'무탄트 메시지'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틱낫한에서 촘스키까지' 등을 만날 수 있다.

'토토, 모리를 만나다'는 인디고 서점을 운영하는 아람샘과 아이들이 함께 한 16회의 행복한 인문학 수업 풍경을 기록한 책이다. '영화관 옆 철학카페', '희망의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책이 읽기와 토론이 소재로 사용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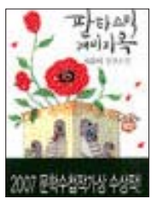
'창조적 열정을 지닌 청소년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는 정재서·김홍희·김상봉 등 '주제와 변주'에 다녀갔던 선생님들과의 토론에서 풀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모아 정리한 책이다.

〈궁리·인디고 8천원, 토토·창조적 각 1만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소설 그리스로마 신화(전 2권)=방대한 내용의 그리스·로마 신화를 하나의 줄거리로 엮었다. 한도훈 부천문화원 향토역사연구위원은 신화의 큰 줄기를 놓지 않으면서도 쉽고 흥미롭게 이야기를 풀어 청소년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읽는 재미를 준다. 〈은행나무·각 권 1만원〉

▲대중문화 심리로 본 한국사회=인터넷 한겨레, 오마이뉴스 등 각종 인터넷 매체에서 글을 쓰고 있는 김헌식씨의 대중문화 평론서. 저자는 문화 현상 이면의 사회적 맥락을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문화가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결과물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북코리아·1만3천원〉



▲판타스틱 개미지옥=올해 제5회 문학수첩작가상을 받은 서유미씨의 첫 장편소설. 자본주의의 상징적 공간인 백화점을 프리즘 삼아 '지금-우리'를 파헤친다. 백화점 화장실에서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고 사건 전모가 밝혀지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욕망도 드러난다. 〈문학수첩·9천원〉

▲루쉰전='아Q정전'으로 유명한 중국의 사상가이자 대문호 루쉰의 전기로 왕스징이 쓰고 신영복·유세종씨가 번역했다. 루쉰의 시선으로 중국의 근현대사를 자세하게 기술한다. "기꺼이 아이들의 소가 되리라"고 했던 루쉰의 청년에 대한 열정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다섯수레·1만2천원〉

▲개가 된 CEO=편견의 문제점과 폐해를 유쾌하게 지적하고 있는 우화집. 저자 고한필씨는 편견으로 둘러싸인 우리의 일상을 보여주며 왜 편견을 버려야 하는지, 편견이 어떻게 자기 계발을 저해해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유쾌한 이야기 속에 진지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한국경제신문·1만1천원〉

▲멍청한 수컷들의 위대한 사랑=미국 동물학자 마티 크럼프가 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의 사랑이야기. 저자는 동물들의 짝짓기, 새끼 돌보기, 먹이 구하기, 소통하기 등을 소개한다. 책이 단순한 동물들의 교접이야기가 아닌 것은 인간의 사랑을 돌아보게 하기 때문이다. 〈도솔·1만1천500원〉

▲태왕사신기1=국내 최대 규모의 제작비 420억을 들여 시작 전부터 관심을 끌었던 TV 드라마 '태왕사신기'의 원작 소설. 송지나와 박경수가 쓴 극본을 김창규가 소설로 옮겼다. 엄청난 제작비로도 보여줄 수 없었던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이야기가 글로 형상화됐다. 〈환타웍스·9천500원〉

▲한국의 주식부자들='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를 쓴 경제전문가 심영철씨가 1년6개월 동안 한국의 주식부자 150명을 취재하고 그들의 성공투자 노하우를 밝힌다. 10년 대세 상승의 징후를 보이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자는 과학적 투자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토네이도·1만2천원〉

▲독립협회, 토론공화국을 꿈꾸다=이황직 숙명여대 의사소통센터 교수가 독립협회가 중심이 됐던 근대 토론의 역사를 되짚었다. 서재필의 귀환과 독립신문의 창간으로 시작된 근대 여론 형성 과정은 대한제국의 가장 위협적 존재였다. 독립협회가 시도했던 3년 간의 민주주의 실험을 재구성했다. 〈프로네시스·9천원〉